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4. Vol. 9, No. 3, 743-770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 개발: 자존심의 매개효과 검증

공 수 자
조선간호대학

한 규 석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은 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본 연구는 한국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적절히 설명하는 모형을 발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남녀 노인(65세~84세) 495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격요인, 성역할 정체감, 가족지원, 유교적 가치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관계를 개인자존심과 가족자존심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구조모형을 가설적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경증은 개인자존감, 정서적 안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남성성, 여성성,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는 자존심(개인, 가족), 정서적 안녕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신경증과 가족지원은 정서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신경증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요인이었으며, 남성성, 여성성,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자존심은 신경증, 남성성 및 여성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대안적 모형을 검토한 결과, 개인자존심에 의한 완전매개 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자존심도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개인자존심을 통해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방향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신경증, 가족지원, 유교적 가치, 자존심, 성역할 정체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은희, (320-711) 충남 논산시 내동 26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E-mail : ehlee@hanmail.net

국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00년 현재 7.3%를 넘어서 UN이 정한 노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고, 2019년이면 14%가 되는 노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1). 외국의 경우 노령화사회에서 노령사회로 이행되는데 소요된 기간은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이 68년이었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년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장기간에 걸쳐 노인문제에 대처해온 것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는 더욱 많은 노인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삶의 질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건강상태와 같은 요인들의 단순한 조사 및 상관연구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변인은 확인했지만 심리적 기제를 밝히지는 못했다. 노인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행변인들의 영향력을 설명하고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과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과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노인의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내외적 변인들을 동시에 다루는 통합적초기에 이루어진 선행변인에 대한 연구는 인구사회학

적 변인에 치중했으나, 그 설명력이 적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성격(Campbell, 1976; Diener, 1996; Diener & Diener, 1995; Myer & Diener, 1995)과 같은 특질이나 자존심(Diener & Diener, 1995; Kwan, Bond, & Singelis, 1997)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행되었다. 그리고 노인이 받는 가족지원이나 문화적 기준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환경 요인도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공호, 1996; Diener, 1996; Diener & Suh, 2000; Lu, Gilmore & Kao, 2001). 게다가 자존심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선행 변인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Kwan, Bond, & Singelis, 1997; Schimmack, Rhadhakrishnan, Oishi, Dzokoto, & Ahadi, 2002).

본 연구는 연구자들이 선정한 선행변인들이 한국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들간의 관계를 자존심이 매개하는가를 검증하여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적절히 설명하는 모형을 발견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이론개발에 기여하며, 연구를 촉진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정책개발 및 노인을 돌보는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삶의 질 측정치로서의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심리학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두는 삶의 질에 대한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자기 삶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은 주관적 만족감, 행복, 생활 만족, 삶의 만족 등과 같은 용어로 혼용되었으나, 심리학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 널리 사용되는 경향이

다(Diener, 1984; Suh & Diener, 1995).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정의는 오랫동안 합의되지 못했으나, Diener(1984)는 이 개념을 세 가지 요소들, 즉 개인의 경험 속에 있는 것, 긍정적인 속성의 측정치,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Diener 등 (1995)이 주관적 안녕감을 “삶에 대한 만족과 그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 반응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적 반응”으로 정의했다.

이 분야에서 심리학자들의 큰 기여는 주관적 안녕감을 삶의 만족도와 정적·부적 정서경험으로 개념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Diener, 1984). 이러한 개념화에 근거하여 볼 때,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상태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적 정서경험이 많고 부적 정서경험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과거에는 단일 개념으로 다루었던 주관적 안녕감을 세 요소로 나누어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요소들이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르거나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독립된 구성요소들이라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주관적 안녕감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는 서로 변별 타당도를 지니고 있어서 각각의 요소와 관련된 변인들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Lucas, Diener, & Suh, 1996).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인 구성 요소는 ‘삶의 만족도’이며, 주관적으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바라던 것과 실제 성취한 것의 일치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George, 1979; 허정무, 1998에서 재인용).

이러한 자기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연구 목적에 따라 전반적인 면(예 : 당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과 구체적인 면(예: 당신의 결혼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을 포함한다. 결국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인 삶 또는 삶의 특정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인지적 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주관적 안녕감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를 다루었다.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는 한 인간이 살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뿐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생활 그리고 미래의 생활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을 말한다. 즉 삶의 만족도는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허정무, 1998)으로 볼 수 있다.

2.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변인

가. 성격

DeNeve와 Copper(1998)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성격특질에 대한 148개 문헌을 메타분석하여 137개의 성격변인들간의 상관을 구했다. 그 중 5요인 성격 차원과 전체적인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는 신경증과 성실성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외향성과 호감성에 의해 정적 정서가 예측되었다. 신경증은 부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의 강한 예측요인이었다. 정서적 안녕감은 외향성과 신경증에 의한 예측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통해 외향성과 신경증이 정서적 안녕감의 강력한 예측요인인 반면, 신경증과 성실성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임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신경

증은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를 일관되게 예측하고 있지만, 외향성은 정서적 안녕감, 그리고 개방성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5요인 성격모형은 매우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 연구(Soldz & Vaillant, 1999)에서는 1977년에 실시했던 연구의 참여자 중 163명의 남성을 1988년에 다시 추적하여 NEO-PI(Costa & McCrae, 1985)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경증, 외향성과 개방성 세 가지 차원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5요인 성격 중 외향성과 신경증적 성격은 범문화적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신경증과 외향성이 일관되게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했기 때문에(Diener & Lucas, 1999),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성격연구자들은 “행복은 안정된 외향성을 가리키는 일”(Francis, 1999, Schimmack, Radhakrishnan, Oishi, Dzokoto, & Ahadi, 2002에서 재인용)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처럼 외향성이 일관되게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기제는 외향성의 본질이 높은 사교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외향적인 사람이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보상을 얻는 관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광범위해서라는 것이다(McLennan, Gott, & Omodei, 1988). 반면, 신경증이 안녕수준에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Smith(1961)에 따르면 낙관성, 따뜻함, 정서적 안정성이 행복의 정서적 상관요인들이다. 그러므로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성과 낙관성 부족으로 죄책감이 높고 정신신체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안녕수준을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5요인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이인혜(1997)의 연구에서는 36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5요인 성격의 신경증, 외향성 및 개방성 차원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확인했다. 남녀 대학생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남자대학생에서 신경증은 주관적 안녕감과 강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외향성과 개방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했다. 개방성은 유쾌한 생활경험의 강도와만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은 불쾌한 생활경험의 강도와 불쾌한 생활경험의 빈도와 강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신경증은 주관적 안녕감의 두 가지 요소인 정서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신경증이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여자 대학생에 대해서는 신경증은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및 정서적 안녕감과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불쾌한 생활경험의 강도와는 정적상관을, 외향성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외향성은 남자 대학생과 달리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정서적 안녕감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유쾌한 생활경험의 강도 및 빈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남녀 모두에게 신경증은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외향성과 개방성은 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고찰 결과 외향성과 신경증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존심은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향성은 개인 자존심을 높이고 정적 정서경험을 증가시켜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신경증은 개인자존심을 낮춤으로써 부적 정서경험을 증가시켜서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 일치모형(congruence model), 양성성 모형(androgyny model), 남성성 모형(masculinity model)이 있다(정옥분, 2002). 전통적 일치모형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단일차원의 양극으로 보았다. 개인은 생물학적인 성과 일치하는 성역할 정체성을 가질 때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남성은 높은 남성성과 낮은 여성성을 지닐 때 심리적 적응에 유리하고, 여성은 높은 여성성과 낮은 남성성을 지닐 때 유리하다고 본다(Lubinski, Tellegan, & Butcher, 1982; 서수정, 1992에서 재인용).

양성성 모형은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닐 때 심리적 적응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모형은 전통적 일치모형과는 달리 남성성과 여성성을 서로 독립적이고 상호보충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양성성의 정의는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것”이다(Kaplan & Sedney, 1980, 장연집, 1993에서 재인용). 양성성을 지닌 사람들의 특성은 다양하며, 상황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며,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며,

그래서 양성적인 사람들이 지니는 장점에 대해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정진경, 1995).

끝으로, 남성성 모형은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양성성이 주도적인 요인으로 보는 입장이다. 양성성 모형에 의한 경험적 연구에서 심리적 적응이 다 낮다는 결과가 지지받지 못하거나 여성성 요인의 영향이 부적이거나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남성성 모형이 제안되었다. Whitley(1983)는 양성성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것은 양성성의 남성성 변인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2세 유아도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uhn, Nash, & Brucken, 1978; 정옥분, 2002에서 재인용), 수많은 연구결과 남성·남성성이 여성·여성성보다 더 가치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며, 이러한 고정관념이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도록 한다(임정빈, 정혜정, 1997). 또한 이신숙과 이경주(2001)의 연구에서 성역할정체감이 노인들의 자존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남성노인은 양성성이 높은 경우에 여성노인은 남성성이 높은 경우에 자존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성역할정체감을 자존심의 선행변인으로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성역할 정체감 유형은 대체로 남성성과 양성성으로 나타났으나,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는 노인일수록 여성성도 적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집단주의 특성이 강한 문화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집단자존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한국 노인에서도 성역할 정체감과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개인자존심과 가족자존심의 매개과정을 거쳐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 가족의 지원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상호지원을 주고 받으며 살아간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기본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사회적 지원이다(김은영, 1997).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이 받는 사회적 지원은 가족 이외의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주로 가족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강력한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사회적 지원의 핵심을 이루며, 특히 한국에서 부모-자식 관계는 끈끈하고 뗄 수 없는 피의 관계이므로, 부모-자식 관계에서 받는 지원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컨대, 김지연(2002)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노인이 좋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족을 통해 가족구성원 개개인 자신들의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며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그들이 갖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가면서 가족전체의 안녕을 도모한다(이가옥, 권선진, 권중돈, 이원숙, 1990). 특히 노년기로 갈수록 가족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차적 집단이다. 노인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93%가 가족을 찾는다고 응답했다(성규탁, 1990). 최수정(2001)은 60세 이상 노인 280명에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을 조사했다. 그 결과 건강 20.0%, 경제상태

12.8%, 자녀관계 10.6%, 가족결속 9.6%, 결혼생활 7.4%, 경제활동, 3.4%, 가족내 역할 및 위치 2.9%, 가족지원 2.9%, 형제 및 친척과의 관계 2.3%, 노인복지시설 2.2%, 가족내 의사결정권 2.0% 순이었다. 이 결과를 다시 더 큰 범주로 묶어본다면 형제 및 친척 관계를 제외한 가족과 관련된 영역 33.4%(자녀관계, 가족결속, 결혼생활, 가족내 역할 및 위치 가족지원)를 차지하여 노인의 삶의 질은 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목적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가족의 화목이나 자녀의 행복이 38.6%,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 38.1%, 만족스런 노후생활 7.7%, 자아실현 2.9%, 경제적 풍요 2.5% 순이었다. 이 결과는 노인의 삶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공적지원과 사적 지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공적지원은 다만 경제적, 기능적으로 취약하면서 따로 부양을 의탁할 사람이 없는 노인에 대해서만 제공되어왔다(이신숙, 2002).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노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부분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가족은 노인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으로 노년기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도환, 2001). 사적 지원은 노인을 지원하는 주체가 가족, 친족 및 친구 등 개인적 혹은 가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비공식적 지원이라고도 한다(이신숙, 2002). 한국노인의 사적 지원망은 성규탁(1991)에 의하면 1) 노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지원망 2) 노인의 형제자매 그리고,

조카 등 별거하는 친척들로 구성되는 친척 지원망 3) 이웃에 사는 사람들의 이웃지원망 4) 이웃이 아닌 가까운 친구, 동료들로 구성되는 친구지원망 5) 교회, 상조회 등으로 구성되는 조직체지원망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사적 지원 중 배우자나 자녀가 전적으로 노인 부양을 책임지는 가족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은 노인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지원체계로서 가족과의 생활이 노인들의 정체감 유지와 기능적, 정서적 안정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의 악화나 정신적 기능의 쇠퇴로 인해 의존성이 증가하고 은퇴로 인해 역할상실이나 자녀의 출가, 배우자와의 사별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된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노인들은 사회적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되는 의존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은 노인들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주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게다가 가족과 함께 살면 노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립감과 상실감을 적게 느끼고 또 친근한 가족에게 부양받을 수 있어서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라. 유교적 가치

주관적 안녕감에서 나타나는 문화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Diener와 Diener(1995)에 따르면 첫째, 문화권마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이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문화권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친숙도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셋째, 서양문화권에 비해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자신을 타인과 더 유사하게

지각하며,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억제하고, 겸손을 더 중시하기 때문일 수 있다. 넷째, 정서표현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다섯째, 문화권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관적 안녕감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인 영향이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배경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인지와 정서 모두에 영향을 준다(Diener & Lucas, 2000; 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 이같은 개인의 인지와 정서에 대한 문화적 영향은 자기(self)가 연결하는 것으로 본다(Markus & Kitayama, 1991; Triandis, 1989). 이는 문화가 자기의 형식과 형태를 제공하며,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삶의 만족도 판단 시 어떤 정보에 비중을 더 두는가를 결정하는데 자기(self)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에 관한 이해는 주관적 안녕감에 문화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설명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Suh, 2000).

유교적 가치는 동아시아 문화의 주요 요소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오래되고 뿌리 깊은 전통이다. 한국인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의식 수준과 비의식 수준 모두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교적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종교의식에 관한 한 연구(윤이흠, 1985)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유교적인 규범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만큼 유교의 다양한 가치관이 한국인의 삶과 사회현상에 전반적으로 침투되어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금장태,

1995에서 재인용).

유교적 가치와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은희(2001)의 연구에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657명을 대상으로 유교적 근로가치 척도를 사용하여 직무몰입, 직무만족 및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유교적 근로가치는 정서적 조직몰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직무관여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교적 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직무관여나 직무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 정서적으로 충성하고 몰입하는 수준은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현경자(Hyun, 2001)는 24-63세까지의 한국인 209명과 미국으로 이민 간지 24년 이상 된 한국인 158명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유교적 가치에서의 변화를 연구했다. 그 결과 예측했던 대로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서구문화에 대한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유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를 통해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서구문화에 대한 접촉이 많을수록 유교적 가치는 그 영향력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고찰한 결과에 기반하여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교적 가치는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교적 가치는 연령이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서구문화에 대한 접촉이 많을수록 그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유교적 가치를 보유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교적 가치가 노인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가치에 동조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게다가 유교적 가치는 가족의 화목과 안녕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족자존심을 더 강화시켜서 주관적 안녕감에 기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 성격, 성역할 정체감, 가족의 지원, 유교적 가치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매개변인으로서의 자존심

자존심은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알려져 왔으며, 선행연구 결과 자존심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되거나 예측력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졌다(김연희, 김기순, 2002; Campbell, 1976; Lucas, Diener & Suh, 1996; Diener & Diener, 1995; Kwan, Bond, & Singelis, 1997; Potter & Gosling, 2001).

자존심은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변인들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5요인 성격과 자존심과의 관련성은 신경증과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외향성과 성실성과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 호감성과 개방성과는 약한 상관을 나타냈다(Kwan, Bond, & Singelis, 1997; Potter & Gosling, 2001). 또한 가족지원과 자존심간의 상관을 보고한 연구결과들이 있다. 예컨대, 유양경(1999)은 65세 이상 재가노인 103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가족지지와 자존심에 관해 연구한 결과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지원과 자존심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집단주

의 문화에서 유교적 가치 또한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덕웅, 2001). 게다가 자존심은 선행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5요인 성격의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존심이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결과가 있다(Kwan, Bond, & Singelis, 1997; Schimmack, Rhadhakrishnan, Oishi, Dzokoto, & Ahadi, 2002).

자존심은 개인자존심과 집단자존심으로 구성되며, 이 두 개념은 서로 상관이 있지만 구분되는 심리적 기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김혜숙, 1994; Luthanen & Crocker, 1990). 그리고 이 두 가지 자존심의 유형은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권에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변인과의 관련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Rhadhakrishnan). 그러므로 비교적 집단주의 문화권인 우리 사회에서는 선행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자존심 뿐 아니라 집단자존심에 의해서도 매개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김혜숙(1994)의 연구에서 집단자존심과 개인주의-집단주의 척도간의 상관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자존심이 높고, 집단자존심이 높을수록 개인자존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경호(200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5요인 성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개인자존심과 집단자존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개인자존심 보다 집단자존심이 성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계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감 연구 시 개인 자존심은 물론 집단 자존심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이 직장이 없고 소속된 집단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집단을 가족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집단자존심 대신 가족자존심을 사용하였다.

가족자존심과 개인자존심간의 관계를 규명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부모양육 스타일(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가족관계 형태(Jacobvitz & Bush, 1996), 가족구조(Bynum & Durm, 1996; McCormick & Kennedy, 2000)가 아동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와 가족이 개인자존심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 성역할정체감, 개인자존심과 집단자존심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성격요인, 성역할 정체감,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간의 관계에서 개인자존심과 가족자존심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였으며, 가족자존심이 개인자존심에 선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모형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1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가족자존심이 주관적 안녕감에 개인자존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개인자존심과 통하지 않고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보는 개인자존심의 부분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외생변인(ξ) 6개와 내생변인(η) 5개로 이루어졌으며, 외생변인은 외향성, 신경증, 남성성, 여성성, 유교적 가치, 가족지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생변인으로는 개인자존심, 가족자존심, 정서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외생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은 12개, 내생변인의 측정변인은 8개이며, 각각의 오차변인(δ , ϵ)로 구성되었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와 목포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84세까지의 일반 남녀 재가노인 500명(남 123명, 여 372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1) 65세 이상 85세 미만 2) 문식력이 있거나 언어이해력이 있는 자 3) 시청각 장애가

없는 자 4) 일상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자 5)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한 자이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은 광주광역시 동구노인복지관에 소재한 노인문제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광주와 목포의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노인들 중에서 위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노인들 편의 추출하였다.¹⁾

측정도구

삶의 만족 척도: Diener, Emmons, Larson, 및 Griffin (1985)이 제작한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차경호 (1995)가 번역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질문에 대한 반응척도는 아주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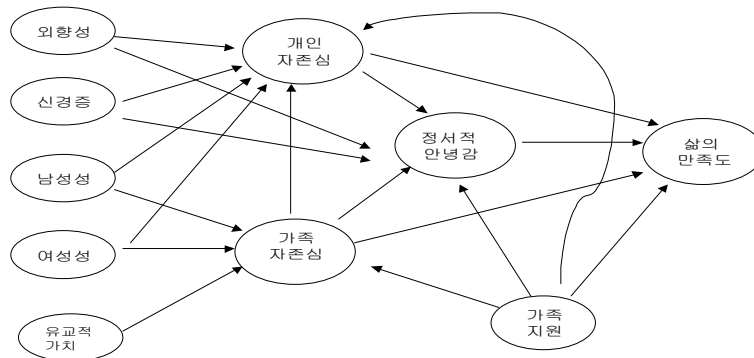


그림 1. 노인의 성격, 성역할 정체감, 가족지원, 유교적 가치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가설적 모형(개인자존심이 주관적 안녕감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모형)

1)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에 등록된 노인은 4000명이며,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500명 정도이다. 또한 목포하당 노인복지관에 등록 노인 수는 980명이며,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 수는 90명 정도이다. 이들 복지관에서는 노인을 위한 상담,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후생복지사업, 의료재활사업, 지역복지협력사업,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령다 (7)까지의 범위이며, 총점은 5점에서 35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정서경험 척도: Andrew & Withey (1976)가 개발하고 차경호(1995)가 번역하여 사용한 정적 정서경험과 부적 정서경험 두 가지 범주의 8가지 정서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적 정서 목록은 기쁨, 애정, 자부심 및 만족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적 정서 목록은 두려움, 슬픔, 분노 및 죄책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에게 이들 정서를 지난 한달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가를 전혀 (1점)에서 항상 (7점)까지의 7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한다. 기쁨과 사랑과 같은 정적 정서에 대한 4개 정서에 대한 응답 점수를 평균한다. 마찬가지로 두려움, 슬픔과 같은 부적 정서정서에 대한 응답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정서적 안녕감 점수는 긍정적 점수에서 부적 점수를 뺀 값이다. 다시 말해 정서적 안녕감이란 정적 정서를 부적 정서보다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적 정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9이고, 부적 정서는 .90으로 나타났다.

5요인 성격척도: 5요인 성격도구는 Costa와 McCrae (1992)가 개발한 NEO PI-R (The Revised Personality Inventory)을 한국판으로 수정한 NEO 인성검사(PSI 컨설팅, 1998)를 토대로 하였다. 본래의 척도는 60문항이지만 응답자들이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5요인 성격검사 170문항 대신 PSI에서 선정한 38문항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외향성과 신경증 요인은

각각 1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 점수만을 사용하였으며, 외향성의 내적 일관성 신뢰 계수는 .79로 나타났으며 신경증은 .80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 척도: 성역할 정체감 이론에 근거한 Bem의 BSRI(Bem Sex Role Inventory, 1976) 개발과정을 모형으로 하여 제작된 정진경(1990)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 60문항을 이주희(1999)가 요인분석하여 선정한 10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높은 6문항을 남성성, 여성성별로 선정했다.

이 척도는 남성성을 가리키는 용어 6개 (예: 씩씩하다, 박력있다, 대범하다, 모험적이다, 지도력이 있다, 야심적이다)와 여성성을 가리키는 용어 6개 (예: 친절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다정다감하다, 상냥하다)로 구성되었다. 평소의 자기 모습을 표현해주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7점 척도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성성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으며 여성성은 .89로 나타났다.

유교적 가치척도: Bond (1988)가 개발하고 이은희(2001)가 사용했던 유교적 역동성 차원에서 사용한 8문항이며, 유교적 가치의 수용도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1) 인사치레나 신세진 것 및 선물 되갚기 2) 지위에 의한 인간관계의 서열 지움과 이 질서의 존중 3) 사람됨의 꾸준함 4) 근검절약 5) 지속성 6) 염치를 아는 것 7) 체면유지 8) 전통의 존중으로 구성되었다. 예비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표준화 잔차가 큰

문항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부합도가 높은 5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인사치레나 신세진 것 및 선물 되갚기”, “지위에 의한 인간관계의 서열 지움과 이 질서의 존중”, “사람됨의 꾸준함, 안정성”, “근검절약”, “체면유지”의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가족지원 척도: Barrera(1986)이 개발한 사회 지원 목록(Social Support Index) 척도를 서경현과 김영숙(2003)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이용했다. 이 척도는 자녀로부터 지원, 친척으로부터 지원, 친구나 이웃으로부터의 지원, 복지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묻는 2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지원에 대한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개인자존심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자존심 척도 10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개인자존심 5문항과 부정적인 개인자존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 (1-5)까지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며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자존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개인자존심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가족자존심 척도: Luhtanen & Crocker (1990)이 개발한 가족자존심 척도를 기초로 하여 저자들이 제작하였다. 집단자존감 척도는 개인자

존심이 다른 사람의 소망이나 기대에 의존하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더 유용할 수 있다. 이 척도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 범주는 소속감, 사적, 공적, 정체성이다. 각 하위척도에는 4문항씩 포함되며, 개발당시 보고된 신뢰계수는 .83-.88이었다. 이 가족자존심은 Rosenberg 개인자존심척도와 상관은 $r = .34$ 로 중간정도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김혜숙, 1994).

본 연구에서는 16문항의 가족자존심 척도를 8문항으로 수정하여 척도를 제작하였다. 저자들이 기존의 가족자존심 16문항을 참조로 하여 각 문항내용들을 검토하여 노인에 적합한 8문항씩을 선정하여 동일한 내용을 가족으로 바꾸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표준화 잔차가 큰 문항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부합도가 높은 5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5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 가족에서 가치로운 구성원이다”, “나는 가끔 내가 우리 가족 구성원의 일부라는 사실이 유감스럽다”,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족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나는 내가 속한 가족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 가족들에서 협조적인 구성원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84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광주광역시에 동구에 소재한 노인연구소에 의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목포 하당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에 의뢰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200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면접훈련을 받은 면접자들이 개인별로 50명씩 노인들에게 조사 문항을 읽어주고 답한 내용을 설문지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참여 노인들에게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5,000원 정도의 응답 사례품을 주었다.

자료분석 방법

모형검증

공변량 구조모형 분석을 위해 LISREL 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 검정과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변인들의 측정척도가 각기 다르고 변인들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분석에서 제외하는 listwise (casewise) 제거법을 이용하였다. 현재 공변량 모형들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단일 지수에 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적합지수에 관한 다중지표를 제시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서(Bollen, 1989; Marsh, Balla, & McDonald, 1988; Tanaka, 1993), 본 연구자도 이를 따랐다. χ^2 값의 적합도가 표본의 크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Bentler & Bonett, 1980), 많은 변인들과 자유도를 가진 모형들은 언제나 유의미한 χ^2 값을 산출하므로 부가적으로 χ^2/df 지수를 사용하였다. Kline(1998)은 $\chi^2/df < 3$ 일 때 제안모형에 자료가 잘 적합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외에 GFI(Goodness of Fit Index, Jöreskog & Sörbom, 1981; Tanaka & Huba, 1985, 1989), NNFI(Non-Normed-Fit Index, Marsh et al., 1988),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89,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teiger, 1990) 등 다른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가능하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노인의 성격, 성역할정체감,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모형 검증

본 연구의 설정모형에는 10개의 하위 척도(외향성, 신경증, 남성성, 여성성, 유교적 가치, 가족지원, 개인자존심, 가족자존심, 정서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로 구성된 20개의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측정모형에 포함된 연구변인들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연구변인들간의 정서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도 각 각에 대해서 성격요인과 성적 정체감,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모든 연구 변인들과 주관적 안녕감의 두 요소인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간의 상관이 각각 .68에서 .15, -.51에서 .16까지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아울러 모든 연구변인들과 매개변인인 개인자존심 및 가족자존심과의 상관은 각기 .69에서 .24, .57에서 .22까지였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 개인자존심과 정서적 안녕감간의 상관인 .69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여성성과 유교적 가치만 제외하고는 1이하이며, 가족지원의 왜도만이 1이상으로 나타나서 단변량 정규분포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그러나 PRELIS를 통하여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왜도, $z = 28.07$, $p < .001$, 첨도, $z = 15.35$, $p < .001$, 왜도와 첨도를 조합한 검증치, $\chi^2 = 1023.69$, $p < .001$). 또한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설정모형을 추정한 결과 표준오차의 분포인 Q-plot의 기울기가 1보다 작고 45도 이하로 심하게 기울어졌으며 2.56보다 큰 표준화된 잔차의 비율이 21.9%(210개중 46개)로서 기준치인 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PRELIS를 이용하여 구한 점근 공분산 행렬(asymptotic covariance

matrix)를 유도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가중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횡단적 자료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가능한 다른 대안 모형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MacCallum, Wegener, Uchini, & Fabrigar, 1993), 최종적으로 설정된 공변량 구조모형과 다른 경합모형들과의 부합도를 비교하였다.

1. 가설적 모형(개인자존심의 부분매개모형)의 검증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은 $\chi^2/df = 2.961$ 로서 기준치인 3이하이며 GFI = .993, NNFI = .992, CFI = .994로서 기준치인 .90이상이며 RMSEA = .064으로서 허용치인 .08이하로서 설정된 가설적 모형이 수용가능

표 1.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계수($N = 495$; listwise deletion, $N = 484$)

연구변인	$\eta 1$	$\eta 2$	$\eta 3$	$\eta 4$	$\zeta 1$	$\zeta 2$	$\zeta 3$	$\zeta 4$	$\zeta 5$	$\zeta 6$	왜도(Skewness)	첨도(Kurtosis)
$\eta 1$: 개인자존심	—										-.51	.71
$\eta 2$: 가족자존심	.65*	—									-.14	.27
$\eta 3$: 정서적 안녕감	.69*	.57*	—								-.49	.41
$\eta 4$: 삶의 만족도	.67*	.48*	.68*	—							-.961	.83
$\zeta 1$: 외향성	.61*	.50*	.54*	.49*	—						-.49	.79
$\zeta 2$: 신경증	-.61*	-.47*	-.66*	-.51*	-.57*	—					.13	.07
$\zeta 3$: 남성성	.54	.38*	.41*	.44*	.58*	-.45*	—				-.31	-.41
$\zeta 4$: 여성성	.47*	.36*	.49*	.41*	.45*	-.32*	.41*	—			-1.11	1.77
$\zeta 5$: 유교적 가치	.25*	.22*	.15*	.17*	.19*	-.08	.18*	.32*	—		-1.11	1.74
$\zeta 6$: 가족지원	.24*	.25*	.33*	.29*	.16*	-.20*	.14*	.00	.01	—	-.11	1.04

* $p < .05$.

한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구에서 설정한 각 내생변인들의 다중상관자승은 개인자존심이 .90, 가족자존심이 .71, 정서적 안녕감이 .72, 삶의 만족도가 .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생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외생변인들에 의해서 대부분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제시된 19개의 경로 중 15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인에서 내생변인으로 가는 13개의 경로계수 중에서 11개의 계수(신경증→개인자존심, (신경증)→정서적 안녕감, (남성성)→(개인자존심), (남성성)→(가족자존심), (여성성)→(개인자존심), (여성성)→(가족자존심), (유교적 가치)→(가족자존심), (가족지원)→(가족자존심), (가족지원)→정서적 안녕감, (가족지원)→(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였으며 내생변인들간의 6개의 경로 중 4개의 경로가(가족자존심)→(개인자존심), (개인자존심)→(정서적 안녕감), (개인자

존심)→(삶의 만족도), (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적 모형(가족자존심과 정서적 안녕감에 개인자존심의 부분매개모형)에 제시된 외향성에서 개인자존심과 정서적 안녕감, 가족지원에서 개인자존심, 가족자존심에서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도의 4개 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 경합 모형 비교

가족자존심이 주관적 안녕감에 개인자존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개인자존심과 통하지 않고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본 설정모형(부분매개모형)과 가족자존심이 개인자존심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완전매개모형과, 가족자존심이 개인자존심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정서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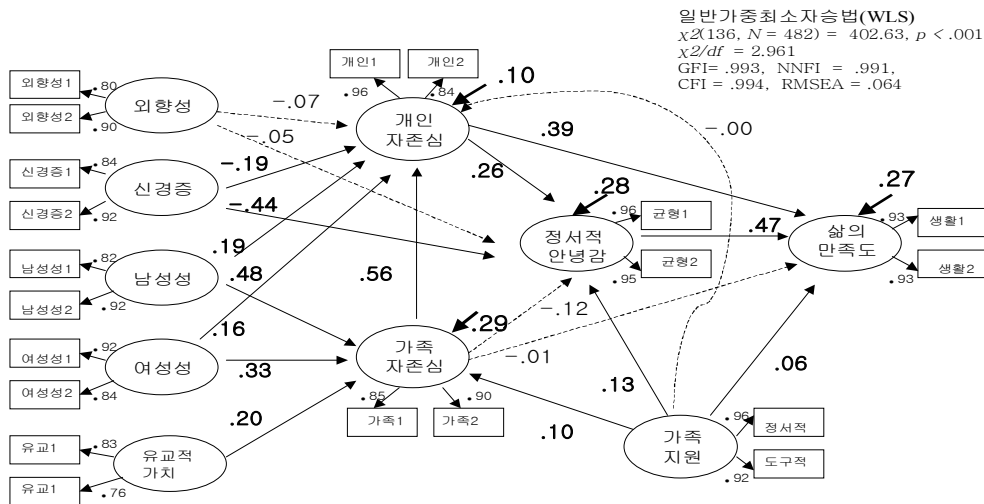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의 성격, 성역할 정체감, 가족지원, 유교적 가치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가설적 모형의 표준화된 구조계수(개인자존심의 부분매개모형)

접모형(비매개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나타났듯이 본 연구에서 가설적 모형으로 설정한 모형이 직접(비매개) 모형($\chi^2(1, N = 482) = 28.85, p < .001$)보다는 부합도가 높지만, 완전매개모형보다($\chi^2(2, N = 482) = .75, p > .05$) 부합도가 높지 않고, 완전매개모형이 설정모형보다 더 간략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매개모형은 부합도 지수, GFI = .993, NNFI = .991, CFI = .994로서 기준치인 .90 이상이며 RMSEA = .067로서 허용치인 .08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chi^2/df = 3.133$ 으로서 기준치인 3을 초과하여 수용가능한 모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나타난 대로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과 두개의 경합모형의 비교 결과 경합모형 1(개인자존심의 완전매개 모형)이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개인자존심의 부분매개모형)이나 경합모형 2(개인자존심의 비매개 모형)보다 부합도가 높고

더 간략한 모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자존심의 완전 매개모형을 한국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모형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3. 최종 선정모형(개인자존심의 완전 매개모형)의 구조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보다 경합모형 II인 개인자존심의 완전매개모형이 더 간략한 모형으로서 최종모형을 완전매개모형으로 수정하였다.

이 완전매개모형의 구조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완전매개모형은 $\chi^2/df = 2.923$ 으로서 기준치인 3이하이며 GFI = .993, NNFI = .992, CFI = .994로서 기준치인 .90이상이며 RMSEA = .063으로서 허용치인 .08이하로서 설정된 모형이 수용가능한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자존심의 매개효과 구조모형들에 대한 부합도(N = 482; listwise deletion, N = 495)

구조모형	χ^2	df	χ^2/df	χ^2 difference	df	GFI	RMSEA	NNFI	CFI
1. 설정모형 (부분매개모형)	402.63***	136	2.961			.993	.064	.992	.994
2. 경합모형 I (비매개모형)	429.28***	137	3.133	26.65***	1	.992	.067	.991	.994
3. 경합모형 II (완전매개모형)	403.38***	138	2.923	.75	2	.993	.063	.992	.994

주. N = 482, GFI = goodness-of-fit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NNFI = non-normed-fit index; CFI = comparative-fit-index.

p<.05 **p<.01 ***p<.001

또한 본 연구의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완전매개모형에서 설정한 각 내생변인들의 다중상관관계가 개인자존심이 .90, 가족자존심이 .71, 정서적 안녕감이 .72, 삶의 만족도가 .7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생변인들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외생변인들에 의해서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노인의 성격, 성역할정체감,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검증

노인의 성격, 성역할, 가족지원, 유교적 가치가 주관적 안녕감과 자존심에 미치는 순효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의 직접효과는 총효과 중에서 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부분이며, 각 변인의 간접효과는 총

효과 중에서 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매개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개인자존심의 완전매개모형)에서 확인된 경로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효과를 분해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면 신경증과 남성성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은 정서적 안녕감과 개인자존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거나 $(-.40 \times .46) + (-.19 \times .41) = -.262$, 개인자존심을 감소시켜 정서적 안녕감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times .40 \times .46) = -.035$.

남성성은 개인자존심을 상승시켜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거나 $(.16 \times .41) = .066$, 개인자존심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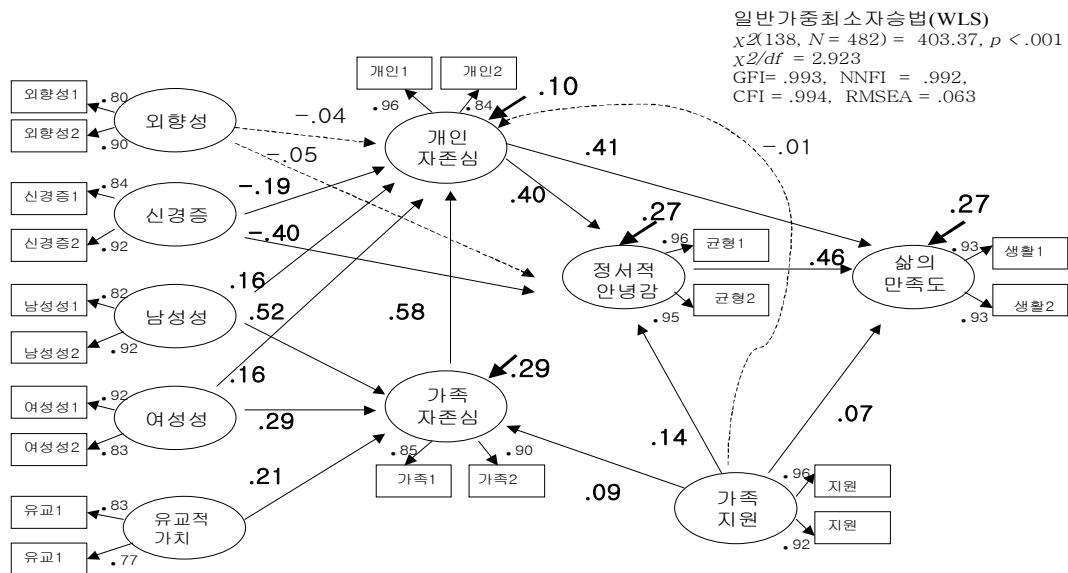


그림 3. 노인의 성격, 성역할 정체감, 가족지원, 유교적 가치 및 주관적 안녕감간의 최종 선정모형의 표준화된 구조계수(개인자존심의 완전매개모형)

표 3. 성격, 성역할 정체감,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의 분해

경로	모형추정치
신경증	
신경증→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184
신경증→개인자존심→삶의 만족도	-.078
신경증→개인자존심→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035
신경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	<u>-.297</u>
남성성	
남성성→개인자존심→삶의 만족도	.066
남성성→개인자존심→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029
남성성→가족자존심→개인자존심→삶의 만족도	.124
남성성→가족자존심→개인자존심→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055
남성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	<u>.274</u>
여성성	
여성성→개인자존심→삶의 만족도	.066
여성성→개인자존심→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029
여성성→가족자존심→개인자존심→삶의 만족도	.069
여성성→가족자존심→개인자존심→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031
여성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	<u>.195</u>
가족지원	
가족지원→삶의 만족도	.070
가족지원→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064
가족지원→가족자존심→개인자존심→삶의 만족도	.021
가족지원→가족자존심→개인자존심→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009
여성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	<u>.164</u>
유교적 가치	
유교적가치→가족자존심→개인자존심→삶의 만족도	.050
유교적가치→가족자존심→개인자존심→정서적 안녕감→삶의 만족도	.022
유교적 가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	<u>.072</u>
모든 경로들의 순효과	<u>.408</u>

시켜 이것이 다시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거나 $(.16 \times .40 \times .46) = .029$], 가족자존심을 상승시켜 이것이 다시 개인자존심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거나 $(.52 \times .58 \times .41) = .124$], 가족자존심을 상승시켜 개인자존심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times .58 \times .40 \times .46) = .055$].

여성성도 개인자존심을 상승시켜 삶의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거나 $(.16 \times .41) = .066$], 개인자존심을 상승시켜 이것이 다시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거나 $(.16 \times .40 \times .46) = .029$], 가족자존심을 상승시켜 이것이 다시 개인자존심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거나 $(.29 \times .58 \times .41) = .069$], 가족자존심을 상승시켜 개인자존심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times .58 \times .40 \times .46) = .031$].

유교적 가치는 가족자존심을 상승시켜 이것이 다시 개인자존심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거나 $(.21 \times .58 \times .41) = .070$], 가족자존심을 상승시켜 개인자존심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times .58 \times .40 \times .46) = .072$].

가족지원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거나 $(.070)$,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14 \times .46) = .064$], 가족자존심을 상승시켜 개인자존심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거나 $(.09 \times .58 \times .41) = .021$], 가족자존심을 상승시켜 개인자존심을 상승

시키고 이것이 다시 정서적 안녕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09 \times .58 \times .40 \times .46) = .009$].

결국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순효과는 신경증이 $-.297$, 남성성이 $.274$, 여성성이 $.195$, 유교적 가치가 $.072$, 가족지원이 $.164$ 로서 신경증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위험요인이며 남성성, 여성성, 가족지원, 유교적 가치가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보호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최종 선정모형 내에서 신경증은 간접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지만, 남성성, 여성성, 유교적 가치는 간접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가족의 지원은 직간접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켜서 전체적으로는 삶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의 성격, 성역할 정체감,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자존심과 가족자존심이 모두 매개하는 다시 말해 개인자존심의 부분매개모형을 가설적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모형을 검증한 결과 신경증이 개인자존심과 가족자존심 및 정서적 안녕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며, 남성성, 여성성, 유교적 가치가 개인자존심과 가족자존심 및 정서적 안녕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원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직접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자존심과 정서적 안녕감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적 모형에서 제시된 18개의 경로 중 14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변인에서 내생변인으로 가는 6개의 경로계수 중에서 4개의 계수가 유의미하였으며 내생변인들간의 13개의 경로 중 10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모형 검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증이 직접적으로 정서적 안녕감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인자존심을 통하여 정서적 안녕감을 감소시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이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이 나타난 이인혜의 연구(1997), 신경증이 정서적 안녕감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Schimmack, Diener, 및 Oishi(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신경증이 어떻게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남성성과 여성성이 개인자존심과 가족자존심을 통하여 정서적 안녕감을 감소시켜서 삶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역할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남성성이 높게 나온 노인들이 삶의 질도 높다는 것이 나타난 연구결과(김태현, 유은희, 1987)와 일치하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높을 때 심리적 적응도 잘 한다고 보는 양성성 이론(정옥분, 1986)을 지지하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셋째, 가족지원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직접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자존심과 정서적 안녕감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원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지연, 2002; 서경현, 김영숙, 2003; 송애현, 2001; 신동순, 홍춘실, 1997; 이신숙, 2002) 결과와 일관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유교적 가치가 가족자존심을 통하여 개인자존심과 정서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유교적 가치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규명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지만, 유교적 가치가 직장인들의 직무만족을 증가시켜서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서(이은희, 2001), 전통적인 한국적 가치인 유교적 가치가 가족자존심을 통하여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가족자존심이 개인자존심을 통하여서만 간접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주의가 중요한 문화가치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심리에 있어서 자신 못지않게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난 결과로 여겨진다.

여섯째, 노인의 성격, 성역할 정체감,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와 정서간의 관계를 개인자존심과 가족자존심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심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변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결과는 한국 노인의 문화적 가치로서 가족자존심이 개인자존심 못지않게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서 노인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외에 가족소속감과 유대감을 통한 한국적 복지노인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여겨진다.

일곱째, 개인자존심이 삶의 만족도를 직접 상승시키기도 하고 정서적 안녕감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자존심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를 정서적 안녕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가 삶의 만족도의 선행변인으로 나타난 연구(Chang, Sanna, & Yang, 2002), 정서적 안녕감이 삶의 만족의 예측요인임을 보여준 선행연구 결과(Schimmack et al., 2002)와 일치하였다.

여덟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으로서 신경증이, 가장 강력한 보호요인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경증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297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성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274이고, 여성성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19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성격적인 측면과 성역할 정체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양성적인 성역할태도가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켜 주관적인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홉째, 유교적 가치가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교적 가치가 간접적으로 삶의 만

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07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신경증)과 성역할(남성성, 여성성)에 비하면 작은 효과지만 노인들의 심리적 적응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인 유교적 가치가 노인들의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최적 모형은 개인자존심의 완전매개모형이었다. 다시 말해 노인의 성격, 성역할 정체감,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개인자존심의 매개를 거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적 모형으로 가족자존심과 개인자존심이 모두 선행변인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는 부분매개 모형을 설정했고, 경합모형으로 개인자존심의 비매개 모형과 개인자존심의 완전 매개 모형 두 가지를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개인자존심의 완전매개모형이 부합도와 간결성에서 가장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은 한국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73%를 설명하여 매우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에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인 노인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기존의 노인 연구에서 노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 및 행복한 노년기 삶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주관적 안녕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의 구체적인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안녕감 개념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삶의 만족만을 평가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만을 다루었고 정서적 측면은 다루어지 못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했다는 점이다.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선행변인과 삶의 만족감간의 단순상관만을 조사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선행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인과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외향성, 남성성, 여성성,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셋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의 매개경로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즉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남성성 및 가족지원은 개인자존심을 통해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성성, 가족지원 및 유교적 가치는 가족 자존심을 통해 정서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선행변인들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적 안녕감이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두 가지 매개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혀서 가족자존심이 개인자존심을 향상시켜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경로를 확인한 점도 본 연구의 의의를 더해주는 결과라 여겨진다.

넷째, 주관적 안녕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문화적인 요인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집단주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성이 있는 유교적 가치와 가족자존심의 개념을 주관적 안녕감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적인 영향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의 일반적인 집단에 대한 가족자존심 척도를 노인에게 사용할 경우 결과가 수렴되지 않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자존심을 측정했을 때 수렴된다는 점을 보여주어 노인에게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한국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포함된 선행변인들이 주관적 안녕감을 73%를 설명하는 효과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선행변인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인과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 그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과정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이론을 노인에게 적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 이론을 새로운 집단에 대해 확장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설명하는 변인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자들을 노인이라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부 도시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 모집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해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서 선정된 변인들의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서 그 유용성을 보여주었으나, 모형에 포함된 선행변인들이 심리적인 변인들에 치중하여 실제로 조작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실제로 조작이 가능한 변인, 예컨대 노인의 활동과 같은 변인을 모형에 포함시켜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여 주관적 안녕감 모형을 구축했다. 횡단적 자료에 근거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제한점을 지닌다. 추후 종단 자료에 기반하여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종단적 자료를 통한 확인 작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존심 척도가 노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집단인 가족을 대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집단자존심 개념과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존의 집단자존심 연구 틀에 맞추어 논의되었으므로 추후 확인 작업이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교차타당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시된 모형은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에 민감한 모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 모형의 실제적인 유용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인 집단 및 노인 관련 실무현장에 이 모형을 반복 적용함으로써 타당성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금장태 (1995). 한국유교문화의 특징. 한국학논집, 27, 139-160.
- 김도환 (2001). 도시노인의 가족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봄호, 171-193.
- 김연희, 김기순 (2002).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한국노인복지연구, 가을호, 157-190.
- 김은영 (1997). 간경변증 환자가 지각한 가족지지와 삶의 질과의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9(3), 512-530.
- 김지경, 박수애, 이훈구, (1999).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 지위가 집단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3(1), 53-64.
- 김지연 (2002). 자녀와의 관계와 성격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 유윤희 (1987). 노년기에서의 성역할 정체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 가정의학회지, 25(4), 113-121.
- 김혜숙 (1994). 한국 집단 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 103-116.
- 서경현, 김영숙 (2003).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13-131.
- 서수정 (1992). 성역할 정체감 유형과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규탁 (1990). 한국노인의 가족중심적 상호부조망. 한국노년학, 10, 163-180.
- 성규탁 (1991). 한국인의 부모부양을 위한 의지와 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1(2), 251-273.
- 송예현 (2001).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지지와 정신건강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연구: D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정신간호학회지, 10(4), 473-483.

- 신동순, 홍춘실 (1997). 노인의 가족지지와 삶의 질. *한국가정간호학회지*, 4, 76-85.
- 유양경 (1999). 노인의 가족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1(3), 367-377.
- 이가옥, 권선진, 권중돈, 이원숙 (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신숙 (2002). 문화적 규범, 가족지지, 공적지지와 기능 손상노인의 심리적 복지간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숙, 이경주 (2001). 남녀 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4(1), 1-10.
- 이은희 (2001). 유교적 근로가치가 직무관여,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14(1), 1-25.
- 이인혜 (1997). 성격, 유쾌한 및 불쾌한 생활경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NEO 성격모델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209-219.
- 이주희 (1999). 취업부부의 역할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 자아존중감 및 성역할정체감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정빈, 정혜정 (1997). 성역할과 여성. 서울: 학지사.
- 장연집 (1993). 서양심리학과 동양사상을 통해서 본 양성 개념의 비교. *여성연구논총*, 8(1), 5-32.
- 전병재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 107-124.
- 정옥분 (1986). 한·미 양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존감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24(2), 123-137.
- 정옥분 (2002). 성인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정진경 (1995). “심리적 성차이”주제의 강의지침. *여성학논집*, 2, 64-70.
- 조궁호 (1996).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 비교문화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5, 229-283.
- 조선배 (1996). LISREL. 영지문화사.
- 차경호 (1995). 한국, 일본 및 미국 대학생들의 삶의 질 비교.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움 자료집*, 113-144.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 9, 7-26.
- 최수정(2001). 도구개발을 통한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1). 한국의 사회지표.
- 한덕웅 (2001). 한국의 유교문화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비판적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49-479.
- 허정무(1998). 퇴직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탐색을 통한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 *한국노년학*, 18(3), 1-18.
- Andrews, F. M.,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 measure,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413-445.
- Bem, S. L. (1976). "Probing the promise of androgyny" beyond sex role stereotypes: *Readings toward a psychology of androgyny*. A. G. Kaplan & J. P. Bean(eds.), Boston: Little Brown.
- Bentler, P. M. (1989).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Los Angeles: BMDP Statistical Software.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Bond, M. H. (1988). Finding universal dimensions of individual variation in multicultural studies of values: The Rockeach and Chinese Value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009-1015.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ynum, M. K., & Durm, M. W. (1996). Children of divorce and its effect on their self-esteem. *Psychological Reports*, 79, 907-916..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Chang, E. C, Sanna, L. J., & Yang, K. M. (2002). Optimism, pessimism,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US and Korea: a test of a mediation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4, 1195-1208.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Five 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2), 197-22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1996). Traits can be powerful, but are not enough: Lessons from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389-399.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t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434-450. Russell Sage: New York.
- Diener, E. & Lucas, R. E. (2000). Explanation differences in societal levels of happiness: Relative standards, need fulfillment, culture, and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41-78.
- Diener, E. & Suh, E, M. (2000).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to compare the quality of life of culture. In E. Diener & M. S. Enkook, (eds.). *Culture & subjective well-being*.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Hyun, K. J. (2001). Sociocultural change and

- traditional values: Confucian values among Koreans and Korean Americans. *International Journal Relations*, 25, 203-229.
- Jacobvitz, D. B., & Bush, N. F. (1996). Reconstruction of family relationships: Parent-child alliances, personal distress, and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32, 732-743.
- Jöreskog, K. G., & Sörbom, D. (1981). *LISREL V: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relationships by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Chicago: National Educational Resources.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wan,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 (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Lu, L., Gilmore, R., & Kao, S. F. (2001). Cultural Values and Happiness: An east-west dialogue.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4), 477-493.
- Lucas, R.,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Luhtanen, R., Crocker, J. (1990).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Manuscript in preparation.
- MacCallum, R. C., Wegener, D. T., Uchino, B. N., & Fabrigar, L. R. (1993). The problem of equivalent models in applications of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185-199.
- McCormick, C. B., & Kennedy, J. H. (2000). Father-child separation, retrospective and current views of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father, and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Psychological Reports*, 86, 827-834.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1.
-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cLennan, J. Gott, G. H., & Omodei, M. M. (1988). Personality and relationship dispositions as determinants of subjective well-being. *Human Relations*, 41, 593-602.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Potter, J., & Gosling, S. D. (2001). Personality correlates of self-estee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5, 463-48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 Schimmack, U., Diener, E., & Oishi, S. (2002).

- Life-satisfaction is a momentary judgement and stable personality characteristic: The use of chronically accessible and stable 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70, 345-385.
- Schimmack, U, Radhakrishnan, P., Oishi, S. & Dzokoto, V. & Ahadi, S. (2002). Culture,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grating process models of life 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4), 582-593.
- Soldz, S., & Vaillant, G. (1999).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the life course: A 4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3, 208-232.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n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Suh, E. M. (2000). Self, hiphen between culture and s u b j e c t i v e well-being. In E. Diener & M. S. Enkook(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MIT Press: A Bradford Book.
- Suh, E. M., Diener, E., Oishi, S., & Tr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ements across cultures: Emotion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4(2), 482-493.
- Suh, E. M., & Diener, E. (1995). Subjective well-being: Issues for cross-cultural research. **한국심리학회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147-165.
- Tanaka, J. S. (1993). Multifaceted conceptions of fit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0-39). Newbury Park, CA: Sage.
- Tanaka, J. S., & Huba, G. J. (1985). A fit index for covariance structural models under arbitrary GLS estimation.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38, 197-201.
- Tanaka, J. S., & Huba, G. J. (1989). A general coefficient of dertermination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s under arbitrary GLS estimation.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42, 233-239.
- Trandis, H. C. (1989). The self and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hitley. B. E. Jr. (1983). Sex-orientation and self-esteem: A critical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4, 773-786.

원고 접수: 2004년 8월 20일

수정원고 접수: 2004년 9월 9일

게재 결정: 2004년 9월 14일

The Development of a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of Korean Elderly: Testing a Mediating Model of Self-Esteem

Su-Ja Gong
Chosun Nursing College

Gyuseog Ha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nhee Lee
Konyang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a structural model of a partially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among antecedents variables (neuroticism, extroversion, masculinity, femininity, familial support, & Confucian value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Korean elderl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tructured individual interview from a sample of 495 elderly people (122 men & 371 women, aged 64~84).

Results from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LISREL 8) showed that the hypothesized model exhibited proper a fit to the data.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individual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s of neuroticism, masculinity, and femininity on subjective well-being. Familial self-esteem also mediated the effects of femininity, familial support, and Confucian value on subjective well-being. Furthermore the neuroticism and familial support had direct effects on emotional well-being. Two alternative role (completely mediating or no mediating) models regarding the self-esteem were tested. The model of completely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fitted the data best. In this model, even familial self-esteem influences th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individual self-esteem. Implications and need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elderly subjective well-being, neuroticism, self-esteem, gender-role identity, Confucian values